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상의 청소년 사이버불링 설명을 위한 통합모델의 검증 : 배출요인과 촉진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이 성 식* · 전 신 현** · 심 홍 진***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상의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찾고자 했고 무엇보다 통합론적 설명을 다루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 통합이론이라 할 수 있는 일반긴장이론 및 일반이론을 근거로 사이버불링의 배출요인들과 촉진요인들을 제시하고 그 요인들의 통합작용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을 배출요인으로 다뤘고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상에서의 사회학습요인과 기회요인이 촉진요인으로서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고, 일상긴장요인들 및 낮은 자기통제력이 각각 사회학습 및 기회요인들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통합모델을 제시했다. 서울, 경기지역 1,496명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의 분석결과 사이버불링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고, 특히 그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부 요인들에서는 서로가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즉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상의 사이버불링에 있어서 일상긴장요인들은 사회학습요인과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작용에서는 기회요인이 중요하여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제시해, 통합모델을 부분적이지만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했다.

❖ 주제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사이버불링, 통합모델, 사회학습과 기회요인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 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근간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학교폭력이 카카오톡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mobile instant messenger 이하 MIM) 사용에서의 사이버불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창호, 2014)에서 중, 고등학생 4,000명 대상 사이버불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응답자의 19.4%가 가해경험이 있었는데, 카카오톡상에서 신청거부나 대화방제외의 배제형태가 10.1%, 온라인게임에서의 괴롭힘이 9.0%, 채팅서비스를 통한 괴롭힘이 7.0%순으로 제시되어 MIM에서의 폭력이 가장 높은 빈도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음을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2014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승현·노성호, 2014)에서 초등학생 4-6학년 1,188명과 중학생 1,270명 대상으로 실시한 따돌림 실태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의 11.3%, 중학생은 15.8%가 따돌림의 가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누군가를 홍보거나 나쁜 말을 퍼뜨렸다’는 경험이 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카카오톡을 통해 욕하거나 말로 공격함’이 5.6%, ‘카카오톡 그룹채팅에 끼워주지 않고 따돌림’이 2.4%순이었고, 중학생의 경우도 그러한 형태의 따돌림 순서대로 각각 11.3%, 8.2%, 4.8%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제 따돌림과 불링은 카카오톡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카카오톡 등 MIM 이용상에서의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다루려고 한다. 그동안 사이버폭력과 불링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몇몇 시도된 바 있지만 아직 국내외적으로 MIM 이용상의 사이버불링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색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흔히 사이버폭력 혹은 불링이라고 할 때 면대면 폭력이 아닌 확대된 네트워크속에 익명의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MIM 사용에서의 사이버불링은 서로 아는 지인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공간에서 현실 학생들간의 학교폭력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 이동,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MIM상의 사이버불링은 학교폭력의 연장선에서 현실기반의 청소년비행이나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언급되던 기존 주요 비행이론들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을 보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는 개인 및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어 왔고 여러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왔다(노성호 외., 1999; 이순래, 2002; 이은희 외., 2004; 이상균, 2005; 김선애, 2007). 그러한 대표적 요인들은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성향 및 부모의 폭력을 포함한 가정, 학교에서의 긴장과 스트레스, 친구관계의 문제나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의 요인들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온라인상의 사이버불링 연구들(성동규외., 2006; 이성식, 2006; 전신현·이성식, 2010; 남상인·권남희, 2013; 이성식·전신현, 2015)에서도 적용되어 왔고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새로운 원인도 모색되고 있다. 이 연구는 MIM상의 사이버불링 원인을 다룸에 있어 그것이 현실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기존 학교폭력의 원인을 다룸과 동시에 그것이 또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요인들을 다루려고 한다.

이 연구는 MIM상의 사이버불링 설명에 있어 주요 요인들을 배출요인과 촉진요인으로 나누고 그 요인들의 통합적인 작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것이 현실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현실 학교폭력의 주요 요인이 작용할 것이지만 MIM 이용특성상의 요인 또한 중요할 것인데, 그와 같은 현실 요인이 MIM상의 요인과 결합해서 작용할 것이라 보며, 현실기반의 요인을 배출요인으로, MIM상의 요인을 촉진요인으로 다룰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하게 만드는 현실에서의 사회환경이나 개인성향의 배출요인들이 그 작용을 더 촉진하게 하는 MIM상의 촉진요인들과 결합될 때 사이버불링에 대한 설명력은 더 높을 것이라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배출요인과 촉진요인을 선정하고 통합론적 설명을 시도함에 있어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과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일반이론을 논의의 근거로 다루려고 한다. 이 이론들은 대표적인 통합이론으로서 두 이론 모두 비행의 주요 원인을 제시하고 그 요인의 작용이 또 다른 조절변인들에 의해 확대 혹은 축소된다고 보고 그 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다루고 있어 이 연구의 통합론적 설명의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배출요인으로 이 두 이론의 대표적 설명요인이 되는 현실에서의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서의 일상긴장과 그리고 개인성향인 낮은 자기통제력을 다루고, 그리고 촉진요인으로서는 이 두 이론에서 주요 조절변인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학습 및 기회요인을 다룰 것이고, 여기서는 촉진

요인으로 MIM상의 요인을 다룬다는 점에서 MIM상의 사회학습과 기회요인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청소년의 MIM상의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모색하고 그 특성에 비추어 통합모델을 구성함에 있어 현실의 배출요인 뿐만 아니라 MIM상의 촉진요인이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두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해야 MIM상의 사이버불링을 잘 설명할 것이라는 통합모델을 제시하고 배출요인과 촉진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기존 원인에서의 배출요인들

이 연구는 앞서 설명했듯이 사이버불링에 대한 통합설명을 제시함에 있어 그 이론적 근거로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과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일반이론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기존 오프라인 연구에서 주요 요인으로 각광을 받아 왔고 아울러 그러한 요인들을 사이버비행에 적용했던 기존 연구결과들을 보았을 때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는 두 이론의 가정, 학교, 친구관계의 일상긴장의 환경요인들과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성향요인을 배출요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 중 겪는 여러 긴장은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Agnew(1992)는 일반긴장이론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긴장이 부정적 감정을 야기함으로써 그것이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는데, 그동안의 청소년대상의 연구에서는 가정, 학교, 친구관계, 지역사회 등 여러 일상에서의 긴장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그 부정적 감정이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Agnew, 2001; Agnew 2006).

이와 같은 긴장요인은 온라인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긴장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사이버불링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저지

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일상긴장은 오히려 현실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에서보다 사이버불링에 더 잘 적용될 수 있는데, 현실 오프라인에서는 긴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비행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온라인에서는 익명성과 비대면, 그 외 손쉬움으로 더 쉽게 긴장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Patchin과 Hinduja(2011)는 일상긴장과 그로 인한 화와 좌절감이 사이버불링의 주요 동기이자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했고, 국내 연구로 홍영수와 김동기(2011)는 사이버비행 설명에서 여러 요인들 중에서 일상긴장과 스트레스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제시했으며, 이성식과 전신현의 연구(2012)에서는 청소년의 학업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가 사이버비행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MIM상의 사이버불링의 경우는 일상긴장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는데 그것은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온라인상에 있기 때문이다. 즉 가정과 학교에서의 학업긴장이외에 친구간의 갈등 등 일상긴장이 학교폭력을 유발할 수 있고 그것은 MIM의 온라인상에서 더 쉽게 표출되어 사이버불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일반이론에서는 대부분의 비행이 즉각적이면서도 충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고, 그 원인이 순간만족과 충동성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내적 성향 차이에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통제력이라고 했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비행을 더 저지른다고 보아 그것이 비행의 주요 설명요인이라고 했고, 낮은 자기통제력은 다른 이론들에서의 요인들과 독립적으로 그리고 그보다 더 비행의 주요 설명원인이라고 보았고 어느 정도 지지되었다(Pratt and Cullen, 2000).

일반이론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은 모든 비행에 잘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듯이 사이버불링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이버공간에서는 한 번의 클릭으로 보다 쉽고 용이하게, 더 더욱 비대면의 상황에서는 우발적이고도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여러 사이버비행의 주요 설명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Higgins, 2005; Buzzell et al., 2006; Malin and Fowers, 2009; 정혜원, 2010). 국내에서 이성식(2006)은 사이버폭력연구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이 다른 요인들보다도 오프라인과 온

라인 모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제시했고, 최근 남상인과 권상희(2013)의 연구에서도 낮은 자기통제력은 사이버폭력의 중요한 원인임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볼 때 사이버불링은 평소 자기통제력이 낮거나 충동적인 성향의 청소년들에 의해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낮은 자기통제력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모두에서 중요한 요인이란 점에서 MIM상 사이버불링에서 중요한 요인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은 휴대상의 스마트폰 이용상에 즉각적이고 충동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은 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촉진요인으로 MIM상의 사회학습과 기회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을 설명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배출요인 이외에 온라인 MIM상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촉진요인들을 다룰 것이다. 배출요인이 사이버불링을 유발하는 현실기반의 요인이라면 촉진요인은 MIM상의 사이버불링을 더 촉진시키는 MIM상의 요인인데, 여기서는 그러한 촉진요인으로 사회학습요인과 기회요인을 다룰 것이다.

비행원인 연구에서 기존 연구들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범위반자와의 차별접촉과 그로 인한 비행학습이다.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비행친구나 위반자와 접촉하면 비행을 학습하게 됨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는데(Akers, 1985; Warr and Stafford, 1991), 국내 사이버불링 연구에서도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전신현·이성식, 2010; 김정은, 2013; 남상인·권남희, 2013; 이성식·전신현, 2015). 이성식과 전신현(2015)은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연구에서 차별접촉요인은 일상문자, SNS, 인터넷상에서의 사이버불링 모두에서 다른 요인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더구나 MIM상의 사이버불링은 아는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그 사회학습과정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MIM에서는 그룹채팅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대일의 공격과 폭력도 가능하지만 카카오톡상의 집단따돌림과 같은 현실기반 및 확장의 집단따돌림의 형태가 일어난다는 점이 기존 사이버

불링과 다르다. 그리고 MIM상에서는 확대된 네트워크보다는 소수의 그룹을 중심으로 폭력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면에 볼 때 MIM상의 사이버불링에서는 무엇보다 서로 아는 친구사이에서 그리고 소수 집단으로부터의 가해자간의 사회화 습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사이버불링을 논할 때 기회요인은 또 다른 촉진요인이 된다. 기존의 주요 이론들이 주로 비행자 환경이나 개인특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이었다면, 고전주의 학파에 근거한 논의는 비행발생의 기회요인을 중시하는데, 예를 들어 생활양식이론(Hindelang et al., 1978)에서는 비행발생 위험에의 노출이, 일상행위이론(Cohen and Felson, 1979; Meier and Miethe, 1993)에서는 매력적 대상이 있고 감시의 부재 등 비행기회가 있어야 비행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들 논의는 사이버연구에도 적용되어 그와 같은 기회가 많을 때 사이버범죄가 더 발생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Holt and Bossler, 2009; Macum et al., 2010; Reyns et al., 2011). 기존에는 피해 중심의 연구였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비행기회가 많고 수월할수록 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손쉽게 한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비행을 저지를 수 있고 감시의 부재 등 우연한 기회가 많고 이는 가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이성식, 2014), 그러한 점에서 사이버불링에서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MIM상 사이버불링은 현실에서보다 더 쉽고 간편하며, 24시간 이용이 가능하여 폭력을 지속할 수 있고, 또 MIM에서는 그룹채팅이외에 대화상대를 탐색하고 추가하기 쉬운 구조이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물색하기 용이한 기술적 환경을 제공하고, 글 이외에 이모티콘, 사진, 동영상 등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 기회의 용이성이 높아 그것이 또 다른 특징이자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통합적 논의

앞서 본 논의에서 이론적 근거로 제시한 일반긴장이론과 일반이론은 대표적인 통합이론이다. 일반긴장이론은 비행원인으로 긴장요인을 제시하면서 그것이외에 여러 다른 이론들을 통합하려고 했다. 즉 긴장이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청소년들 모두

가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비행을 저지른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그 조건적 조절변인으로는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Sutherland, 1947)의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과 태도,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의 부모애착, 학업관여, 신념 등의 사회유대요인, 그이외에 자긍심이나 사회지지와 같은 요인들을 제시했다(Agnew, 1992, 2006). 즉 일상긴장으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행친구와 사귀거나 비행태도를 갖고, 비행을 통제할 사회유대, 자긍심, 사회지지가 낮을 때에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상호작용효과는 미약하다는 결과도 있었지만 그 통합적 논의는 어느 정도 지지되고 있다(Mazerolle and Maahs, 2000; Agnew, 2006).

앞서 MIM상의 사이버불링의 특징이 서로 아는 사이의 관계에서 그리고 소수의 그룹채팅상에서 사이버불링학습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일반긴장이론에서의 통합논의 중 긴장의 영향에서 조건적 조절변인으로는 다른 요인들보다도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차별접촉과 태도의 작용이 중요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상긴장이 주요 동기의 하나로 긴장표출이 사이버불링의 원인이 될 것이지만 일상긴장이 MIM상의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사회학습요인들의 촉진작용이 중요할 것이고, 긴장과 사회학습요인이 필요충분적으로 사이버불링에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이론에서는 어릴 때 형성된 자기통제력이라는 내적 개인성향이 비행의 주 설명원인이라고 보았지만, Gottfredson과 Hirschi는 낮은 자기통제력만을 비행의 유일한 원인으로 본 것은 아니었고 통합이론을 제시했다. 그의 일반이론은 실증주의와 고전주의 학파를 통합하려고 했듯이, 낮은 자기통제력은 비행의 필요조건이고, 비행발생의 또 다른 충분조건으로 비행의 기회가 갖추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람이 아무 때나 언제나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행의 기회가 갖추어져 있을 때 비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제시했고 그와 같은 통합론적 논의는 어느 정도 지지된 바 있다(Longshore, 1998; LaGrange and Silverman, 1999; Smith, 2004; Hay and Forrest, 2008; 이성식·박정선, 2014).

MIM상의 사이버불링의 경우도 그와 같은 낮은 자기통제력의 성향의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대로 MIM상의 사이

버불링의 특징으로 사이버불링이 보다 손쉽고 친구들과 24시간 대화가 가능하며, 그룹채팅 등의 기회의 용이성이 그 촉진요인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면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은 그와 같은 기회요인과 함께 결합하여 필요충분적으로 사이버불링에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이론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조절변인으로는 기회요인을 제시했지만 앞서 일반긴장이론에서 일상긴장이 사회학습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았듯이 일반이론을 좀 더 확장해 본다면 낮은 자기통제력의 경우도 사회학습요인들과 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이 비행친구 등 학습요인이 높을 때 비행을 더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듯이(Wright et al., 1998; Higgins et al., 2007; Holt et al., 2012; 이성식과 박정선, 2014), 낮은 자기통제력은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나 태도와 같은 사회학습요인들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낮은 자기통제력과 기회요인이 상호작용효과를 갖듯이 기존 연구는 부족하지만 일상긴장과 기회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일반긴장이론에서 일상긴장의 영향력에서 조절변인으로 차별적접촉이외에 여러 요인들을 제시했듯이(Agnew, 1992) 비록 그 이론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회요인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상긴장의 청소년은 MIM이용상에 기회가 높을 때 더 쉽게 긴장을 표출하고 사이버불링을 저지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기존 학교폭력 연구에서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일상긴장이나 낮은 자기통제력의 현실기반의 요인을 배출요인으로, 그리고 촉진요인으로 MIM상의 요인을 다룰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하게 만드는 현실에서의 사회환경이나 개인성향의 배출요인들이 그 작용을 더 촉진하게 하는 MIM상의 촉진요인들과 결합될 때 사이버불링에 대한 설명력은 더 높을 것이라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촉진요인으로 MIM상의 사회학습이나 기회요인들을 다루려고 하며, 이처럼 배출요인으로서 현실기반의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은 온라인 MIM상의 주요 촉진요인으로서 사회학습 및 기회요인과 함께 필요충분적으로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줄 것이며, 따라서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은 각각 MIM상 사회학습 및 기회요인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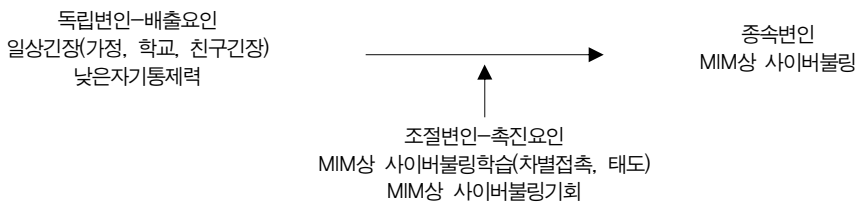
Ⅲ. 연구모델과 방법

1. 연구모델

MIM상의 사이버불링을 설명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델은 아래 [그림 1]에서와 같다. 즉 사이버불링은 현실 오프라인에서의 배출요인들과 온라인 MIM상에서의 촉진요인들이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두 요인들이 함께 작용할 때 그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처럼 배출요인과 촉진요인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배출요인들로는 앞서 논의에서처럼 일상긴장요인으로 가정과 학교, 친구관계에서의 긴장과 개인성향인 낮은 자기통제력을 사용할 것이며, 조절변인으로 촉진요인들로는 MIM의 주요 특징이자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불링학습(사이버불링 친구와 차별접촉 및 태도) 및 사이버불링기회를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는 MIM상의 사이버불링을 설명함에 있어서 일상긴장이거나 낮은 자기통제력은 MIM상의 사이버불링학습 및 기회요인과 통합하여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림 1] MIM상의 사이버불링의 원인에 대한 통합모델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014년에 실시한 조사자료를 사용하기로 하는데, 이 자료는 서울 및 경기도의 중고등학생을 다단계화계통추출법을 통해 조사

한 것으로, 중학교는 서울 3개교, 경기도 4개교에서 1,2,3학년별로 1학급씩, 고등학교는 서울 3개교, 경기도 4개교에서 1,2학년을 2학급씩 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2014년 6월 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고 1,662명이 조사대상이었지만 설문지 회수 결과 무응답이 많거나 부적절하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490명을 최종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다룰 사이버불링은 Williard(2006)의 논의에 기초하여 사이버불링에 해당하는 1) 욕설, 2) 비방/허위사실유포, 3) 스토킹, 4) 성희롱, 5) 신상정보 유출, 6) 따돌림, 7) 위협/협박 등 일곱 항목에 대해 MIM상에서 일대일의 채팅과 그룹채팅에서의 위의 각각의 경우로 “없음(0)”과 “있음(1)”에 응답하도록 한 후 이것을 합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설명요인으로 일상긴장요인으로서는 가정, 학교, 친구와의 긴장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Agnew(2001) 논의를 참조로 부모와의 긴장은 “나는 부모님과 갈등이 심하다”, “나는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많다”, “나는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한다” 등 세 문항($\alpha=.940$), 학교에서의 긴장은 “나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나는 학교 가기가 싫다”, “나는 진학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등 세 문항($\alpha=.773$), 친구와의 긴장은 “나는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 “나는 친구들에게 인정을 못받는다”, “나는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는 편이다” 등 세 문항($\alpha=.960$)을 질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기존의 연구에 의거하여(Grasmick et al., 1993), 충동성, 위험추구성, 단순작업추구성, 현재지향성, 이기성, 화기질 등 여섯 특성에 대해 두 문항씩의 질문을 하였는데, 예컨대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기분내키는대로 행동한다”, “나는 종종 재미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가 있다”, “나는 안전한 것보다 스릴있고 신나는 모험을 더 중요시한다”, “나는 복잡한 일은 딱 질색이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되도록 피한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앞으로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편이다”, “나는 계획을 세우고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되는데로 한다”, “나는 뭐든지 내위주로 생각한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밖에서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다”, “나는 작은 일에도 흥분한다”, “나는

누군가와 충돌이 있을 때 차근차근 말하기보다 흥분하여 다툼이 있기도 하다”와 같은 총 열 두개의 질문에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900).

사회학습요인으로 MIM상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사람 중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등의 행동을 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에 “전혀 없다”, “한두명 있다”, “어느 정도 있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에 이르는 응답항목에 응답하도록 했으며,

MIM상 사이버불링태도는 앞서 사이버불링 항목의 1) 욕설, 2)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3) 스토킹, 4) 성희롱, 5) 신상정보 유출, 6) 따돌림, 7) 위협과 협박 등 일곱 문항에 대해 각각 “전혀 나쁘지 않다”에서 “매우 나쁘다”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 후 역으로 코딩한후 합산하였다(alpha=.983).

MIM상 사이버불링기회는 평소 사이버불링의 기회가 많을지의 기회인지도로 측정하기로 하는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불링을 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불링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불링은 직접 말로 하는 것보다 편할 것 같다” 등 세 문항을 질문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917).

통제변인으로는 응답자의 성과 학년으로, 성은 여자는 0, 남자는 1로, 학년은 중1부터 고2까지를 1-5점을 부여하여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표 1>에서와 같이 남자 756명(50.7%), 여자 734명(49.3%)로 남자가 다소 많았으나 거의 비슷했고, 중 1,2,3학년 학생이 각각 230명, 226명, 225명으로 중학생 대상자가 전체의 45.5%를 차지했고, 고등학생은 1학년이 421명, 2학년이 394명으로 54.5%를 차지해 중학생보다 다소 많았다.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보면 일상긴장요인으로 부모와의 긴장은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5.433으로 낮은 편이었고, 학교에서의 긴장은 평균값이 5.260, 그리고 친구와의 긴장은 4.404로 가장 낮은 것을 제시했다. 낮은 자기통제력

은 12-60범위에서 평균값이 28.149였고, MIM상 사이버불링친구는 1-5범위에서 평균값이 1.45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MIM상 사이버불링에 대한 태도는 7-35범위에서 평균값이 11.903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MIM상 사이버불링의 기회는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5.598이었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다룬 MIM상의 사이버불링은 0-14범위에서 평균값이 1.752로 매우 낮았는데, <표 2>에서는 구체적 결과를 제시한다. 조사대상자의 사이버불링 경험을 보면 일대일 채팅의 경우(23.9%)나 그룹채팅(30.2%) 모두에서 욕설의 경험이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는 조사대상자의 35.2%가 욕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따돌림의 형태가 많았는데 일대일 채팅의 경우(17.1%)나 그룹채팅(23.1%)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28.6%가 경험이 있었고, 전체경험 중심으로 보면 그 다음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26.2%, 신상정보의 유출 10.1%, 스토킹 9.3%, 성희롱 7.6%, 그리고 위협/협박이 6.0%순으로 제시되었다.

<표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명	%	평균	표준편차	범위
성	남자	756	50.7			
	여자	734	49.3			
학년	중1	230	15.4			
	중2	226	15.1			
	중3	225	15.0			
	고1	421	28.1			
	고2	394	26.3			
부모긴장				5.433	2.900	3-15
학교긴장				5.260	2.651	3-15
친구긴장				4.404	2.253	3-15
낮은자기통제력				28.149	9.366	12-60
사이버불링친구				1.458	.761	1-5
사이버불링태도				11.903	7.842	7-35
사이버불링기회				5.596	3.051	3-15
사이버불링				1.752	2.992	0-14

〈표 2〉 MIM상의 사이버불링 유형별 경험

	일대일채팅		그룹채팅		전체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욕설	1126(76.1)	354(23.9)	1003(69.8)	434(30.2)	925(64.8)	503(35.2)
비방/허위사실	1258(85.2)	218(14.8)	1113(77.6)	321(22.4)	1050(73.8)	372(26.2)
스토킹	1410(95.3)	70(4.7)	1316(91.6)	121(8.4)	1295(90.7)	133(9.3)
성희롱	1402(94.8)	77(5.2)	1352(94.0)	86(6.0)	1320(92.4)	108(7.6)
신상유출	1399(94.5)	81(5.5)	1306(90.9)	130(9.1)	1283(89.9)	144(10.1)
따돌림	1225(82.9)	252(17.1)	1103(76.9)	332(23.1)	1016(71.4)	407(28.6)
위협/협박	1411(95.3)	69(4.7)	1368(95.2)	69(4.8)	1343(94.0)	85(6.0)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모델의 검증결과는 <표 3>에 제시되는데, 우선 첫 번째 본 연구의 MIM상의 사이버불링을 설명함에 있어 배출요인으로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의 분석결과를 보면 학교긴장을 제외한 부모긴장과 친구긴장의 일상긴장요인 및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했다. 부모긴장은 $p<.01$ 수준에서 유의미했고 친구긴장은 $p<.001$ 수준에서 부모긴장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낮은 자기통제력 역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했지만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베타값을 보면 친구긴장의 영향력보다는 낮았다. 아울러 남자가 여자보다 $p<.001$ 수준에서 더 사이버불링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능성이 $p<.05$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분석결과는 배출요인들 및 본 연구의 MIM상의 촉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MIM상의 사이버불링을 종속변인으로 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그 결과를 보면 일상긴장요인 중 부모와의 긴장과 학교에서의 긴장을 제외한 친구와의 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조절변인으로 MIM상의 사이버불링친구, 사이버불링태도, 그리고 사이버불링기회 모두가 $p<.001$ 수준에서 사이버불링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보면 그 중에서도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접촉이 가장 강한 예측요인인 것을 제시했고, 그 다음이 사이버불링기회, 사이버불링태도 순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예측대로 촉진요인인 MIM상의 사회학습요인 및 기회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세 번째 분석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모델로 배출요인들과 촉진요인들간의 상호작

용효과를 제시한다. 그 결과를 보면 일상긴장요인과 MIM상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차별접촉간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나(친구긴장과 비행친구간의 상호작용효과는 $p < .10$ 수준에서 미약하게 유의미했음) 일상긴장요인으로 학업긴장 및 친구긴장이 MIM상 사이버불링태도와 각각 $p < .01$ 수준과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을 제시했고 아울러 일반긴장이론을 확대해서 살펴본 일상긴장요인들과 MIM상 기회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 결과는 일상긴장요인들 중 친구긴장이 기회요인과 $p < .05$ 수준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제시했다. 또한 일반이론의 논의대로 낮은 자기통제력과 MIM상 사이버불링기회의 상호작용효과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예측과는 달리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 사이버불링 통합가설 검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사이버불링					
	(1)		(2)		(3)	
	b	β	b	β	b	β
남성	1.135***	.191	.739***	.126	.702***	.120
학년	.119*	.057	.066	.032	.060	.029
부모긴장	.095**	.093	.047	.047	.038	.034
학교긴장	-.056	-.050	-.043	-.039	.000	.004
친구긴장	.233***	.176	.183***	.137	.127**	.091
낮은자기통제력	.046***	.144	.031***	.096	.028***	.096
사이버불링친구			.912***	.235	.809***	.197
사이버불링태도			.066***	.170	.086***	.233
사이버불링기회			.195***	.202	.163***	.182
부인*친구					-.008	-.084
학인*친구					-.066	-.046
친인*친구					.109#	.066
부인*태도					.002	.018
학인*태도					.017**	.113
친인*태도					.015*	.081
부인*기회					-.011	-.036
학인*기회					-.013	-.037
친인*기회					.034*	.078
낮자*친구					.017	.044
낮자*태도					.000	.006
낮자*기회					.007**	.069
R제곱	.128		.277		.328	
F값	33.546***		57.113***		30.983***	

$p < .10$; * $p < .05$; ** $p < .01$; *** $p < .001$

V. 결 론

이 연구는 카카오톡으로 대표되는 MIM상의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찾고자 했고 무엇보다 통합론적 설명을 통해 그 원인을 다루려고 했다. 이에 대표적 통합이론이라 할 수 있는 일반긴장이론 및 일반이론을 중심으로 통합모델을 구성하고 검증하고자 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을 배출요인으로 다뤘고 무엇보다 MIM상에서의 사이버불링에 있어서 촉진요인으로 사회학습요인과 기회요인이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배출요인과 촉진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다루는 모델을 검증하고자 했다.

본 연구결과는 대체로 통합모델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부분적으로만 지지했다. 우선 배출요인으로는 일반긴장이론과 일반이론의 주장대로 부모 및 친구와의 긴장,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이 그 원인으로 중요했다. 그리고 촉진요인으로 MIM상의 사이버불링친구와의 차별접촉, 사이버불링태도, 사이버불링기회는 독립적으로 매우 중요했다. 본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배출요인과 촉진요인간에 상호작용효과를 가져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여러 긴장요인들 중에서 친구와의 긴장의 영향력이 강했고, 친구와 긴장관계에 있는 청소년이 MIM상 사이버불링에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경우와 사이버불링기회가 많을 경우 그리고 사이버불링친구와 사귀는 경우도 비록 다소 약했지만 사이버불링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제시했다. 학업긴장은 독립적인 영향력은 낮았으나 MIM상의 사이버불링태도와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고, 부모와의 긴장은 촉진요인들과 상호작용효과를 갖지 못했는데, 부모와의 긴장은 그와 같은 촉진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하기보다는 첫 번째 결과와 두 번째 결과를 비교해 미루어 볼 때 그 요인들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비록 사회학습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MIM상의 사이버불링기회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 보면 사이버불링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고, 특히 그 요인들이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서로가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보면 통합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는데, 대체로 볼 때 비록 친구긴장은 기회요인과도 상호작용효과를 가졌지만

본래의 일반긴장이론대로 긴장요인은 주로 사회학습요인, 그 중에서도 사이버불링 태도와, 그리고 일반이론의 논의대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주로 기회요인과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IM상의 사이버불링의 경우는 독립효과를 보면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예측대로 무엇보다 사회학습요인과 기회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는 MIM상의 특성상 아는 친구들과의 그룹채팅에서와 같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또 사이버불링의 용이한 기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가정, 학교에서의 긴장해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친구간에 친밀하게 지내고 소통을 통해 긴장을 줄일 수 있는 학교교우관계가 성립되도록 하며, 친구와의 긴장관계에 있는 아이들은 사회학습요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의 교육과 함께 MIM사용과 스마트폰사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한 것을 제시한다. 아울러 기회요인이 중요한 것을 보면 MIM의 적절한 사용 및 기술적 보완책도 개발될 필요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아이들은 학습의 측면보다는 기회차단에 노력을 기울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새롭게 등장하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상의 사이버불링을 설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앞으로는 보다 더 적절한 설명요인들의 모색과 통합모델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연구자료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1,2차에 걸쳐 조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환경요인이나 개인성향이 안정적인 것이라 가정한다면 크게 문제시될 것은 아니지만 향후 패널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비행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종속변인으로 사이버불링의 합산된 값이 좌측으로 편향될 수 있어 좀 더 세밀한 분석을 요한다. 이 연구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나 초등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는 확대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남녀별로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남녀 청소년에 따라 MIM사용목적이나 원인들의 작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성별 분석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향후 그와 같은 발전된 연구모델과 보완된 자료, 세밀한 분석을 통한 연구들로 사이버불링의 원인이 더욱 모색되고 청소년들의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정은(2013),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비행친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9(4) : 133-159.
- 김선애(2007), 가정, 학교, 친구관련 변인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1):101-126.
- 남상인·권남희(2013), 청소년 사이버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23-43.
- 노성호·김성언·이동원·김지선(1999),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 성동규·김도희·이윤석·임성원(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보 19 : 70-129.
- 이상균(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한국아동복지학 19 : 141-170.
- 이성식(2006), 사이버언어폭력의 원인과 방지대책. 형사정책 18(2) : 421-440.
- 이성식(2014), 대학생의 사이버일탈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주요 네 이론에서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4 : 145-168.
- 이성식·박정선(2014), 청소년 모바일메체 이용상의 문자폭력 원인: 세 주요 요인들의 통합적 모색. 한국범죄학 8(3) : 3-29.
- 이성식·전신현(2012), 인터넷사용, 일상긴장, 비행의 관계: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23(3) : 293-318.
- 이성식·전신현(2015),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원인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의 세 이용환경으로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비교. 형사정책연구 26(3) : 187-207.
- 이순래(2002),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 이승현·노성호(2014), 청소년 따돌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 이은희·공수자·이정숙(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

- 교폭력과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6(1) : 123-145.
- 이창호(2014),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신현·이성식(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집단괴롭힘 현상의 원인
모색. 청소년학연구 17(11) : 159-181.
- 정혜원(2010), 청소년단계에서 사이버비행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일반긴장이론, 자기
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2) : 263-288.
-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 홍영수·김동기(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감과 사이버비행
의 구조적 관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 : 127-148.
- Agnew, R.(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 47-87.
- Agnew, R.(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 : 319-61.
- Akers, R.L.(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2nd.
Belmont, CA: Wadsworth.
- Buzzell, B., Foss, D. and Middleton, Z.(2006), Explaining Use of Online
Pornography: A Test of Self-Control Theory and Opportunities for
Devia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nd Popular Culture* 13 : 96-116.
- Cohen, L. and Felson, M.(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ies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 588-608.
- Gottfredson, M.R. and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G., Tittle, C.R. Burski, R.J. and Arneklev, B.K.(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 5-29.
- Hay, C. and Forrest, W.(2008), Self-Control Theory and the Concept of
Opportunity: The Case for a More Systematic Union. *Criminology* 46(4)

: 1039-71.

- Haynie, D. and Osgood, D.W.(2005), Reconsidering Peers and Delinquency: How do Peers Matter? *Social Forces* 84(2) : 1109-1130.
- Higgins, G.E.(2005), Can Low Self-Control help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Software Piracy Problem? *Deviant Behavior* 26 : 1-24.
- Higgins, G., Fell, B. and Wilson, A.(2007), Low Self-Control and Social Learning in Understanding Student's Intentions to Pirate Movie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5(3) : 339-357.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lt, T., Bossler, A. and May, D.C.(2012), Low Self-control, Deviant Peer Associations and Juvenile Cyber Deviance.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2) : 378-395.
- LaGrange, T.C. and Silverman, R.A.(1999), Low Self-Control and Opportunity: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as an Explanation for Gender Differences in Delinquency. *Criminology* 37 : 41-72.
- Longshore, D. and Turner, S.(1998), Self-Control and Criminal Opportunity: Cross-Sectional Test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5 : 281-98.
- Longshore, D., Chang, E, Hsieh, S. and Messina, N.(2004), Self-Control and Social Bonds: A Combined Control Perspective on Deviance. *Crime and Delinquency* 50 : 542-564.
- Malin, J. and Fowers, B.(2009), Adolescent Self-Control and Music and Movie Pirac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5 : 718-722.
- Mazerolle, P. and Maahs, J.(2000), General Strain and Delinquency: An Alternative Examination of Conditioning Influences. *Justice Quarterly* 17 : 753-778.
- Miethe, T.D. and Meier, R.F.(1994), *Crime and Its Social Context: Toward an*

- Integrated Theory of Offenders, Victims, and Situations*. Albany: SUNY Press.
- Patchin, J.W. and Hinduja, S.(2011),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and Society* 43(2) : 727-751.
- Pratt, T.C. and Cullen, F.T.(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 931-64.
- Skinner, B.F. and Fream, A.M.(1997), A Social Learning Theory Analysis of Computer Crim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 : 495-518.
- Smith, T.R.(2004), Low Self-Control, Staged Opportunity, and Subsequent Fraudulent Behavio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1 : 542-63.
- Sutherland, E.H.(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delphia: Lippincott.
- War, M. and Stafford, M.(1991),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 What They think or What They do? *Criminology* 29 : 851-866.
- Willard, N.E.(2006),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Aggression, Threats, and Distress*. Eugene, OR: Center for the Safe and Responsible Internet Use.
- Wright, B.R., Capsi, A and Silva, P.A..(1999), Low Self-Control, Social Bonds, and Crime: Social Causation, Social Selection, or Both? *Criminology* 37 : 479-514.

An Integrated Approach in the Explanation of Juvenile Cyber Bullying in Mobile Instant Messenger : Interaction Effects between Push and Pull Factors

Lee Seong-sik* · Jun Shin-hyun** · Shim Hong-jin***

This study intends to test an integrated model in the explanation of juvenile cyber bullying in mobile instant messeng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push and pull factors for an integrated model. Based on general strain theory and general theory of crime, this study uses strain in family, school, and peer relation and low self-control as push factors and emphasized social learning and opportunity factors as pull factors in explaining juvenile cyber bullying in mobile instant messenger. In this sense,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push factors(strain factors and low self-control) and pull factors(social learning factors and opportunity factor). Using data from surveying 1,49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Kyunggi area, it is found that cyber bullying are explained by several factors and their interaction. Results show that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both strain factors and social learning factors are significant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low self-control and opportunity factor is also significant.

❖ Keywords: Mobile Instant Messenger; Cyber Bullying; Integrated Approach; Social Learning and Opportunity Factors

투고일 : 5월 12일 / 심사일 : 6월 10일 / 게재확정일 : 6월 17일
--

*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 Professor,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 Associate Fellow,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